

■ 말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 온 가족 나눔: 지난해 힘쓰고 애써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을 이길 수 있는 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말로만, 글로만 가르쳐진 것이 아니다. 가르침과 함께 모든 삶의 모습에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이렇게 성행하고 자녀들이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은 나 자신이 먼저 믿음으로 산 삶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이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르친 내용과 함께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왔고 어떠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았는지를 몸으로 보여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지키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 우리는 우리 삶이 곧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1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박해는 **참 신자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다면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도 아무 박해가 없다면, 경건하게 살지 않았다는 반문이 됩니다. 그러므로 박해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박해를 통해 여러 가지 유익을 우리에게 주신다.

첫째, 박해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으로부터 건지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

둘째, 박해를 통해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십니다. 박해를 통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것이 어떤 것이며,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셋째, 이 박해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이 박해를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면 믿지 않는 세상이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는 것으로 박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더 크고 넓으신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특별히 15절에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을 통해 성경을 더 잘 배우는 중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시일을 두고 배워야** 합니다. **꾸준히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루 아침에 성경의 진리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또한 열심히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성경 말씀을 내 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각 저자들을 통해 성령의 영감을 통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66권의 성경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될 때만 영감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도 영감을 주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새로운 해석의 뜻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영감을 주셔서 더욱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4:12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 말씀합니다.

지금도 살아 있고 역사하시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배우고 실천하여 더욱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 함께 기도: 우리 가족 모두가 올 한 해도 말씀을 더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아가게 하옵소서!